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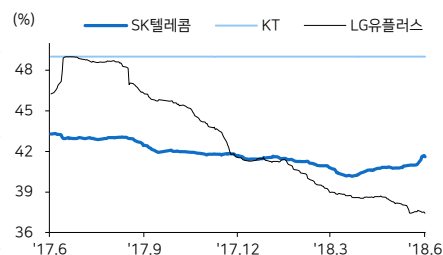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2018.6.18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2.7	-2.3	-3.6	-3.1	9.3	9.3	1.0	1.0	2.0	2.0
통신업종	3.0	4.9	2.0	-9.5	7.7	7.7	0.8	0.8	3.9	3.9
SK텔레콤	3.5	5.6	-2.1	-15.3	6.6	6.8	0.9	0.8	4.3	4.4
KT	2.4	3.3	1.6	-9.6	10.2	9.8	0.6	0.6	3.8	4.1
LG유플러스	7.6	7.2	4.3	-8.2	10.6	9.7	1.0	1.0	3.2	3.5
AT&T	-2.0	3.8	-10.4	-13.3	9.7	9.7	1.4	1.3	6.1	6.2
Verizon	-2.3	0.4	-1.0	-8.8	10.6	10.3	3.6	3.0	5.0	5.1
T-Mobile	3.8	5.9	-7.3	-4.2	18.8	15.2	2.2	2.0	0.0	0.0
Sprint	6.2	7.9	2.4	0.0	28.3	N/A	0.9	0.8	0.0	0.0
NTT Docomo	0.8	1.6	3.6	6.4	14.6	14.6	1.8	1.7	3.5	3.8
KDDI	1.0	3.5	12.4	4.0	12.9	11.9	2.0	1.8	3.0	3.3
Softbank	3.9	-1.1	-3.2	-6.8	8.4	16.0	1.8	1.4	0.5	0.5
China Mobile	-1.7	-4.2	-2.8	-8.5	10.2	10.0	1.1	1.1	4.8	4.9
China Unicom	-2.3	-11.0	4.1	-4.9	28.3	17.9	0.8	0.8	1.5	2.3
China Telecom	-1.6	-2.7	6.1	-4.7	11.9	10.6	0.7	0.7	3.5	3.8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SKT 41.6% (+0.6%p WoW, +0.8%p MoM)
KT 49.0% (Flat WoW, Flat MoM)
LGU+ 37.4% (-0.1%p WoW, -0.8%p MoM)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율 한달째 상승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은 전주 대비 소폭 하락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6월 둘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5.7%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3GPP의 5G 표준 제정과 미국 망중립성 폐지 이슈가 통신 3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다만, 15일 5G 주파수 경매 시행에 따른 과열 경쟁 우려로 주 후반 소폭 하락하는 모습
국내 기관은 통신 3사 모두 순매수, 외국인은 SK텔레콤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18일 5G 주파수 경매가 재개되는 가운데 경매 초기 종료 여부에 주목
5G 주파수 경매가 3일차인 19일 이내 초기 종료 될 시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투자 불확실성 완화
5G 주파수 경매 종료 후에는 3Q18 성능시험(BMT) 과정을 거쳐 4Q18 본격적인 장비 투자 전망
6월 전개되는 또 다른 주요 이벤트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여부에 투자자 관심 집중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0	11	12	13 2018 지방선거	14	15 국내 5G 주파수 경매 시행	16
17	18 국내 5G 주파수 경매 재개	19	20	21	22	23

3 주간 뉴스

▶ 5G 주파수 경매 4조원 넘기나?... 이동 3사 3.5GHz 놓고 경쟁 치열

(이투데이)

- 15일 시작된 5G 주파수 경매가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18일 재개될 전망
- 3.5GHz 대역은 6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불록(10MHz)당 948억원에서 957억원으로 상승
- 28GHz 대역은 매물이 적어 3사가 균등하게 나눠가지며 1라운드 만에 종료
- ⇒ 5G 전국망 구축에 필수적인 3.5GHz 대역 확보를 위한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 요금 인하 압박 속에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 시 경매 3일 차 내 결판을 낼 전망

▶ 방통위 면담하는 넷플릭스... "우대 행위" vs "소비자 선택" 논란

(미디어펜)

- 넷플릭스 데이비드 하이먼이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상임위원진과 면담 예정
- 넷플릭스는 국내 디라이브, CJ헬로 등 케이블TV와 제휴 중이며, 최근 LG유플러스와 제휴 추진
- 이를 두고 넷플릭스의 국내 생태계 장악 우려와 국내 콘텐츠 다양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
- ⇒ 넷플릭스는 플랫폼 업체와 수익 배분을 9대1로 하고 있지만 국내는 6대4 수준으로 차이가 존재
- ⇒ LG유플러스가 IPTV 최초로 제휴를 추진 중인 만큼 계약 유효성에 따라 나머지 통신사에 영향

▶ 미국 망중립성 폐지... 국내의 여파는?

(미디어펜)

- 미국 망중립성 원칙이 지난 11일 공식 폐기돼 미국에서 효력을 상실하면서 국내외 여파에 주목
- 망중립성 폐지로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등 미국 콘텐츠 사업자(CP)의 일부 타격을 예상
- 다만, 매체들은 망중립성 폐지로 소비자의 인터넷 서비스가 느려지는 현상을 없을 것으로 전망
- ⇒ 시장 환경의 차이로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가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 다만, 국회를 중심으로 제로레이팅 활성화 통한 비즈니스 확장 및 소비자 혜택 강화는 가능

▶ 5G SA 글로벌 표준 완성... 상용화 가속

(ZDNet Korea)

- 미국 라호야에서 열린 3GPP 80차 무선 총회에서 5G 글로벌 표준이 공표
- 작년 12월 LTE와 5G를 복합 사용하는 NSA 규격에 이어 코어망을 5G로 사용하는 SA 규격 발표
- 5G 글로벌 표준 완성에 따라 5G 상용 단말과 장비,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
- ⇒ 국내 통신 3사는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들에게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한 상태
- ⇒ 12월 1일 5G 주파수 사용을 앞두고 3Q18 성능시험(BMT) 과정을 거쳐 11월 장비 입고 전망

▶ 정부, 올해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233억원 투입

(ZDNet Korea)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233억원을 투입하고 실증사업을 추진
- 스마트교통,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재난안전, 실감미디어 총 5개 분야 서비스 제공이 목표
- 5G와 타 산업의 적극적인 융합을 위해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를 늘릴 계획
- ⇒ 작년부터 이어진 통신비 인하 기조에도 5G를 신성장 사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는 지속
- ⇒ 5G 국제 표준 완성과 주파수 경매가 시행되는 만큼 정부의 5G 투자 의지는 산업에 긍정적

▶ AT&T·타임워너 합병 코앞... 합병원 "독점 증거없다"

(ETNews)

-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법무부가 요구한 M&A 차단명령 청구소송을 기각
- 연방지방법원이 AT&T와 타임워너 합병을 합병이라고 판결한 만큼 M&A 성사 가능성 커짐
- AT&T, "20일 이전 M&A 마무리를 기대하며 합리적 가격으로 획기적 콘텐츠를 제공할 것"
- ⇒ M&A 시 강력한 콘텐츠와 공급망을 가진 기업이 탄생하는 만큼 보다 많은 소비자 유치가 가능
- ⇒ 컴캐스트 역시 미디어 기업 폭스 인수 계획을 밝히는 등 방송과 통신 M&A 사례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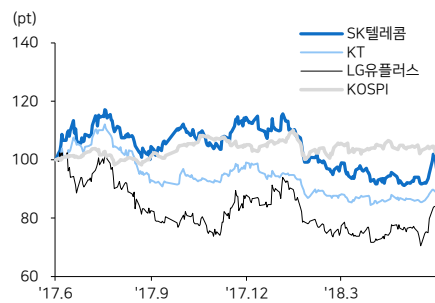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주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34,500	17.2	16.1	16.4	1.3	1.4	2.6	2.5	4.4	4.5	5.0	4.9	14.8	13.2
	KT	28,300	6.7	21.8	22.1	1.3	1.3	0.7	0.7	4.4	4.5	2.6	2.6	5.8	5.9
	LG유플러스	13,400	5.3	11.3	11.6	0.8	0.8	0.5	0.6	2.3	2.5	3.4	3.2	9.9	10.0
미국	AT&T	33.2	242.9	156.4	156.8	30.9	31.2	20.8	21.5	50.8	51.4	7.1	7.0	14.1	14.8
	Verizon	48.1	198.6	129.1	130.4	29.9	30.9	18.7	19.2	47.4	48.4	6.7	6.6	40.2	34.8
	T-Mobile	60.0	50.9	43.1	45.3	5.4	6.1	2.7	3.3	11.9	12.8	6.9	6.4	12.3	12.6
	Sprint	5.5	22.0	32.4	32.7	2.6	2.4	5.5	-0.2	11.1	11.7	4.9	4.6	14.1	-0.4
일본	NTT Docomo	2,859	97.8	44.2	44.2	9.1	9.2	6.7	6.4	13.9	14.0	6.9	6.7	12.6	12.0
	KDDI	3,038	69.6	45.8	46.8	9.0	9.3	5.3	5.6	14.1	14.4	5.8	5.6	15.6	15.7
	Softbank	8,324	82.8	83.8	85.1	11.6	10.8	9.9	4.8	25.0	24.6	8.9	9.1	22.0	9.4
중국	China Mobile	70.3	183.2	119.6	123.1	19.0	19.4	18.0	18.6	43.6	45.0	2.6	2.5	11.6	11.4
	China Unicom	10.1	39.3	44.6	47.0	1.7	2.6	1.3	2.1	13.9	14.9	3.2	3.0	2.8	4.4
	China Telecom	3.6	37.5	60.1	62.3	4.7	5.1	3.2	3.5	16.6	17.2	3.1	2.9	6.1	6.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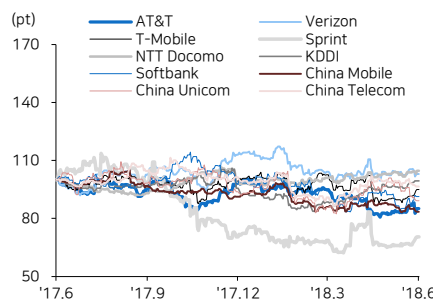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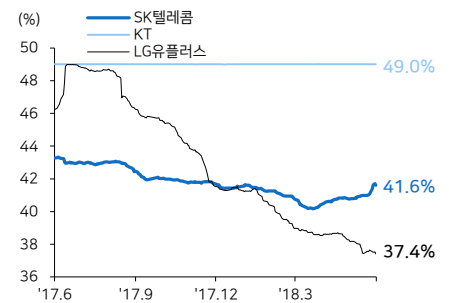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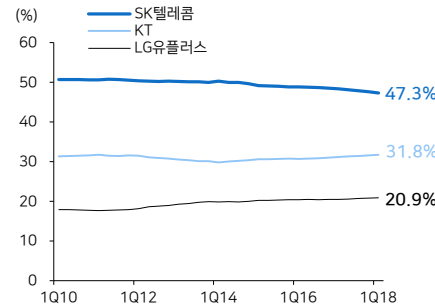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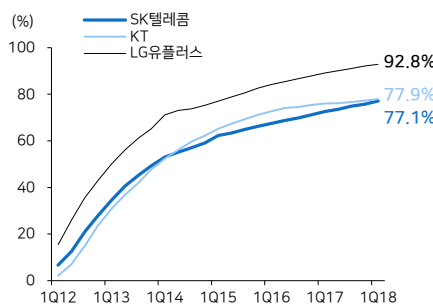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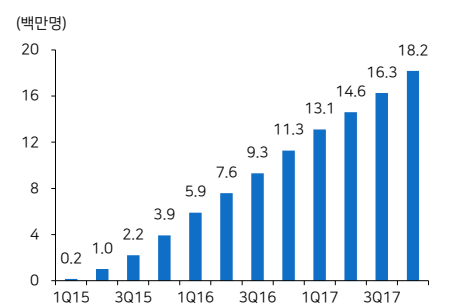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보급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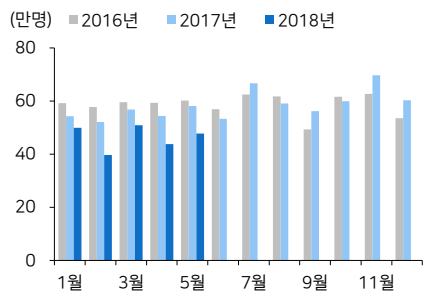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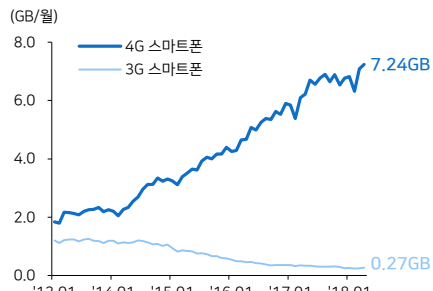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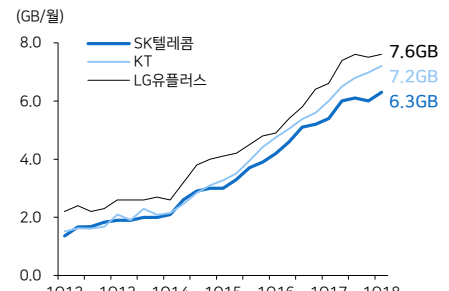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6월 1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 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1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6월 1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